



한글독송용 경전 시리즈 10권 발간

조현춘 교수

오늘의 언어로 '가르침' 읽어야죠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고 쉬운 우리말로 옮기는 일에 매진하고 있는 조현춘 교수. 그는 최근 무비 스님의 감수로 <한글독송용 불교경전 시리즈> 10권을 펴내 불자들이 부처님 가르침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더듬들을 놓았다.

경전의 한글화, 따지고 보면 조선조 세종 때부터 계속되어 온 불사다. 그러나 수많은 경전을 한 시대에 다 번역하여 통용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거기다가 번역하는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 '정설'을 인정할 수도 없다. 그래서 불자들은 경전을 읽을 때 문장이 가 지런히 정리되지 않았거나 용어가 다소 적절치 않아도 한문을 번역한 뜻이라 여기고 불편해 하지 않는다. '과연 이대로 읽고 이해하는 것이 바른 경전읽기의 자세인가'라는 의심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경전은 그 시대의 언어로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경전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수단이지 '주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현춘 교수(경북대 심리학과·58)가 지난 10여 년 동안 불잡고 씨름해 온 숙제는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지금의 언어로 쉽게 경전

하고 이 육성취는 한 문장 안에 있어야 오해나 혼란이 없다'며 <금강경>의 첫 문장을 예로 들었다. '부처님께서 1250명이나 되는 많은 스님들과 함께 어느 때에 사위국의 기원정사에 계시면서 다음과 같이 하시는 것을 제가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라고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원칙은 우리말이 갖는 리듬을 최대한 살려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한 것이다. 경전의 흐름을 장과 절로 구분한 것이나 결집자의 설명에 해당하는 부분은 흐린 글씨로 인쇄하여 이해를 도운 점, 간단한 설명은 각주로 긴 설명은 용어해설로 따로 정리한 점 등도 돋보이는 작업의 원칙들이다. 조현춘 교수는 10권의 한글 독송 경전들을 보이며 "나무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 명호만을 염하기보다는 <관음경>이나 <아미타경> 독송을 통해 불교를 먼저 이해할 것"을 강

조 당시 무비 스님은 법가량을 해보자며 무작정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시달리던 때였다. 조 교수 또한 막무가내로 해석본을 놓고 갔다. 3주후 다시 스님을 찾았을 때 스님의 태도가 완전히 변해 있었다. 스님은 원고를 책으로 펴내야 한다고 그를 독려했다. 그로부터 무비스님은 조 교수에게 가장 친절하고 든든한 스승이요 감수자가 됐다. 1998년 <금강경>을 출판하며 '한글독송용 경전 시리즈'로 이어졌다. "저는 그저 정리하고 스님께 점검받는 심부름만 했을 뿐, 화화 회원들이 모두 같이 의논해 만들었습니다." 조현춘 교수는 한글독송용 경전 시리즈를 화화회원들의 공로로 풀었다. 화화회는 매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어진다. 안환권, 강수균 교수 등 9명의 주 회원과 그 밖의 임시 회원들로 진행되는 화화회는 공의와 정직을 통해 이미 나온 한글독송용 경전들을 놓고 비교 검토하는 데도 한 몫을 했다. 학자들 특유의 치밀함은 글자 한 자, 오자 한 자 넘길 수 없었다. 경전 한 줄을 놓고도 몇 시간씩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곤 했다. <반야심경>의 경우 몇 달의 고민을 거쳐 발표하고, 신랄한 비판과 반대의견에 불착해 한바탕 토론을 하는 등 연구·발표·점검이 15번이나 반복됐다. 이렇게 화화모임에서 일차 점검이 끝나면

부처님당시 상황충실·육성취따라 이해쉽도록 원칙 세워
경전 한 줄에 몇 시간씩 토론, 반야심경 해석 15번 점검도
감수자 무비 스님 든든한 스승... "사는 날까지 법 전할것"

을 읽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로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조 교수는 최근 숙제의 결과를 내놓았다. '한글독송용 불교경전 시리즈'. <지장경> <관음경> <불유교경> <아미타경> <예불문전수경> <일반법회> <매일법회> <금강경> <백백대참회문> <보현행원품> 등 불교의 정수가 담긴 10권의 경전이다. 조 교수 혼자만의 작업은 아니다. 대강백 무비 스님이 안전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었다. 또 조 교수가 이끌고 있는 '화엄경과 화이트헤드'를 연구하는 모임(이하 화화회)의 회원들이 초역을 일일이 점검하는 등 든든하게 뒤를 받쳐 주었다. 조 교수와 무비 스님과 화화회 회원들. 이들의 '삼각관계'는 우리 시대의 언어질서에 맞는 경전 시리즈를 펴내는데 환상적인 콤비다. 조 교수는 경전을 번역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을 먼저 세웠다. 경전이 설해지는 부처님 당시의 상황을 충실하게 따르는 것이 첫 번째 원칙. 예를 들면, 부처님이나 제자들이 '반말'이 아닌 '존댓말'을 사용했을 것이라는 정황을 재현한 것이다. <금강경>의 장로 수보리는 부처님보다 40년 연장자다. 과연 부처님은 "수보리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을까? 또 하나의 원칙은 '새천년육원칙'으로 육성취(경전을 구성하는 여섯 가지 원칙, 6하 원칙)와 유사성을 구성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교수는 "누가 누구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시는 것을 누가 보고 들었는가의 순서가 지켜져야



'화엄경과 화이트헤드를 연구하는 모임' 회원들은 조 교수의 번역작업에 없어서는 안 될 든든한 버팀목이다.

조했다. 경전 독송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동양정신이 없는 서양과학은 살벌하고, 서양과학이 없는 동양정신은 산만하다'고 생각한 조현춘 교수는 20대 초반부터 서양 상담, 심리치료학을 공부하는 한편, 도덕경, 논어, 천자문 등을 통한 동양의 정신을 두루 탐구했다. 젊은 시절부터 동양정신을 좇았지만 나이 50을 앞두고도 불교를 전혀 알 길이 없었던 조 교수는 1993년부터 <금강경>을 화두삼아 잡고 늘어졌다. 3~4년 후 자신이 정리한 <금강경> 해석본을 가지고 무비 스님을 찾았다. 그러나 무비 스님은 대뜸 그를 '미친놈' 취급했다.

이제는 무비 스님의 답판이 남았다. 스님과의 답판도 치열했다. 꼬박 3시간 40분을 자제한 후 흐트리지 않고 논의한 적도 있다. 5년 전 동산을 하다가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조 교수. 그 후유증으로 건강에 자신도가 커진지 오래다. "이미 생사의 문턱에 갔다 왔기에 어떤 욕심도 없다"는 조 교수는 사는 날까지 부처님 가르침을 불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경전 번역의 원을 세웠다. 조현춘 교수는 오늘도 특유의 트레이드 마크 '허허허' 웃음을 지으며, 불자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경전을 넘기고 독송을 한다. 글·사진/대구=배지선 기자

양주 대원정사(大願精寺) 3년 천일 지장기도 동참 안내

제방의 도량을 탐방하며 수행정진 하던 중 지장도량 건립 불사의 뜻을 세워 1986년 양주 일영리에 대원사(大願寺)라 명명하여 자그마한 지장도량을 창건하였으나, 관광유원지화 되면서 수행도량의 유지가 어려워 1989년 현재의 이곳에 부지를 확보하여 천막과 비닐하우스 등 임시가건물에서 8년 동안 밤낮없이 불사성취 원력기도 수행과 땅의 결실로 현재의 도량을 건립하였습니다. 중생의 약하고 나태한 심신과 모든 흠어진 것들의 근원을 한곳에 모으는 의미에서 대원정사(大願精寺)라 사찰명을 개명하였습니다. 그 이후 지장대불 입상(35자) 좌우보좌 도명존자 무독귀왕, 삼살개 조성봉안을 시작으로 육지장 입상, 명부전(영가 장기 보존), 대웅전, 천당과 지옥 등 불교 관광지를 조성하여 고통 받는 중생들의 안식처와 의지처로 가꾸고 성취해 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소납의 기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3년 천일 지장기도를 발원하오니 뜻깊고 인연있는 불자님들은 수회 동참 바랍니다.

대원정사 주지 해련 합장

- 3년 천일 지장기도 기도시간**
- 지장대불 철야정진기도
 - 시간 : 매주 토요일 밤 11시 ~ 새벽 4시
 - 장소 : 지장대불 앞
 - 선종기도 : 매월 음력 1일 ~ 3일
 - 산신불기도 : 매월 음력 3일 오후 7시
 - 약수터 용왕 불공기도 : 매월 음력 8일 오후 7시
 - 매일 : 새벽 3 ~ 6시 / 오전 11시 ~ 1시 / 오후 5시 ~ 7시

- 천일기도 동참안내**
- 스님 백회 공양 참회기도
 - 법당에 가족등(황금색)을 올리고 3년 천일기도 회향때 스님 100분을 모시고 대중공양을 올리는 만복의 근원이 되는 큰 행사입니다. 동참하신 분들의 이름을 현판에 각인하여 그 큰 공덕을 오래 전할것입니다.
 - 매일 3,330원 / 매월 100,000원 / 3년 360만원
 - 법당 황금색등 (가족단위) 1달 3만원 / 3년 100만원
 - 외부 기도 등 (1인 한등 5만원 / 2인 한등 75,000원)
 - 100일간 30만원 / 49일간 20만원 / 21일간 10만원



2005년 8월 31일 지장보살님, 무독귀왕, 도명존자를 모시는 도중에 맑은 날씨임에도 하늘에서 갑자기 소나기가 20분간 내려 도명존자의 두 눈에 눈물 자국형상을 남기고 하늘은 다시 청명해졌습니다.



2005년 10월 11일 오후 3시 10분 지장보살님께서 육원장을 손에 쥐시자 화창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선명한 무지개가 지장보살님의 머리위에 1시간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 대원정사에서는 납골당과 수목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하여 드립니다. 농협 201058-52-053979 (박경자)

대한불교조계종 고령산 영무봉 대원정사 주지 석해련 합장
주소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고령산 영무봉 (장흥유원지 내) 전화 031)855-5501~3